

사업설명회

-인니 팜 기업 지분 인수-
(’25.11.24.)



Disclaimer

본 자료는 당사 및 해당 산업의 사업 및 재무 현황과 결과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예측정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에 관계된 정황과 결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내포한 의견과 예측**입니다. 이에 경영환경, 사업여건 등의 변화 및 위험으로 인하여 본 자료의 내용과 회사의 실제 영업실적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는 **명시적/암묵적**으로 본 자료와 해당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성도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Table of Contents

I. 팜농장사업 현황/성장성

II. 인수 개요

III. 사업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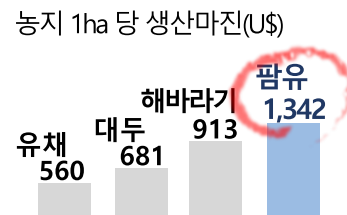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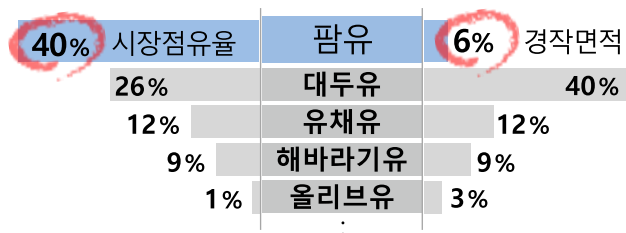


I. 팜농장사업 현황/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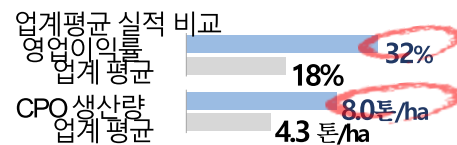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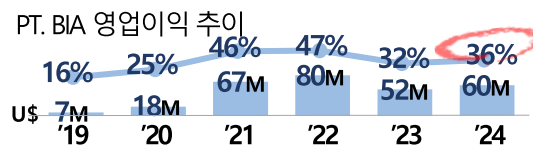
수익성과 장기 성장성을 보유 하였으며, 향후 공급 제한이 예상되는 高 진입장벽 산업

수익성

- 탁월한 생산성 바탕, 글로벌 시장 교역량 기준 점유율 1위 품목
- 他유지류(유채/대두 등) 대비 생산량 약 4~8배로, M/S 40% 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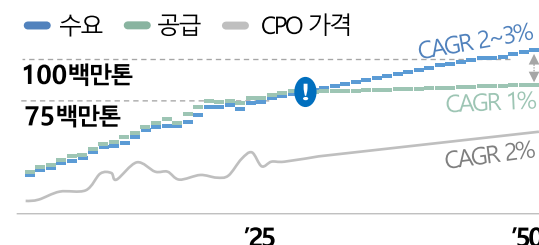


- 당사 팜농장, 우수한 운영역량 기반 업계 평균比 고수익 창출 중
- 영업이익 가동 초기 대비 233% 성장 및 영업이익률 업계 평균比 1.8배 수준



성장성

- 수요안정성: 식용·산업용, 친환경 연료 등 향후 수요 견조/확대 예상
- SAF 핵심원료(POME) 등, 인구/친환경연료 활용 증가 등으로 수급불균형 예상



'28년경 공급부족 발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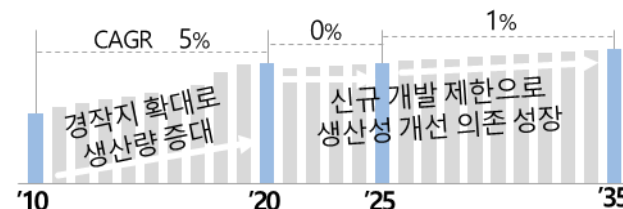
- + 인구 및 바이오디젤 활용 증가 등
- 신규 개발 제한으로 증산 한계

年 2% 수준 가격 상승 전망

- 이전 20년 CAGR: 4.5% ('00~'20)
- 이전 5년 CAGR: 4.9% ('20~'25)

- 高진입장벽: 신규 농장 개발 제한으로 농장 보유가치 증대 전망

- 글로벌 ESG 정책 강화에 따른 증산 정체 현상 발생



※ 인니, 말련 ~85% 생산

인니	46 백만톤
말련	19 백만톤
태국	3 백만톤
콜롬비아	2 백만톤
나이지리아	1 백만톤

☞ 한정 자원으로서의 Upstream 가치 지속 증대 전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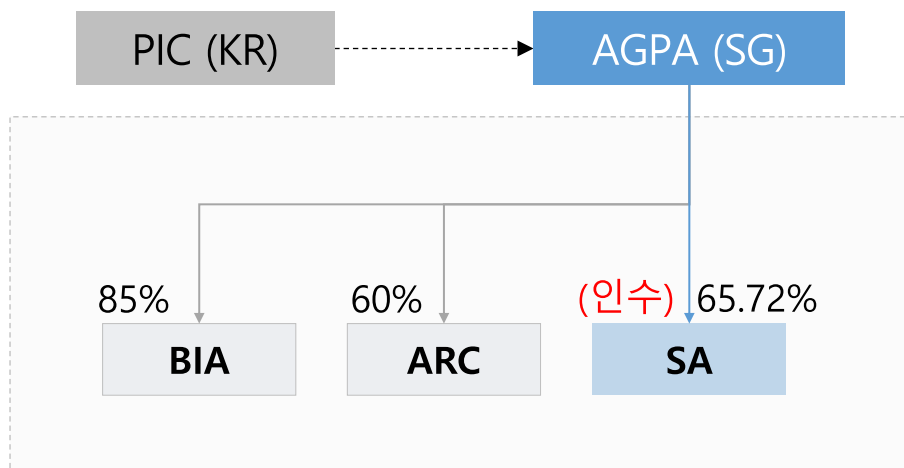
당사의 글로벌 Top Tier 수준 자산(PT.BIA) 운영 역량 기반, 밸류체인 강화를 통한 적기 진입 필요

II. 인수 개요

우수 팜 기업 인수를 통한 수익 규모 확대 및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

인수 구조

- 인수 구조 : 싱가포르 자회사 AGPA 통한 인수



- 인수 내용 : 총 투자비 U\$ 567백만, 지분 65.72%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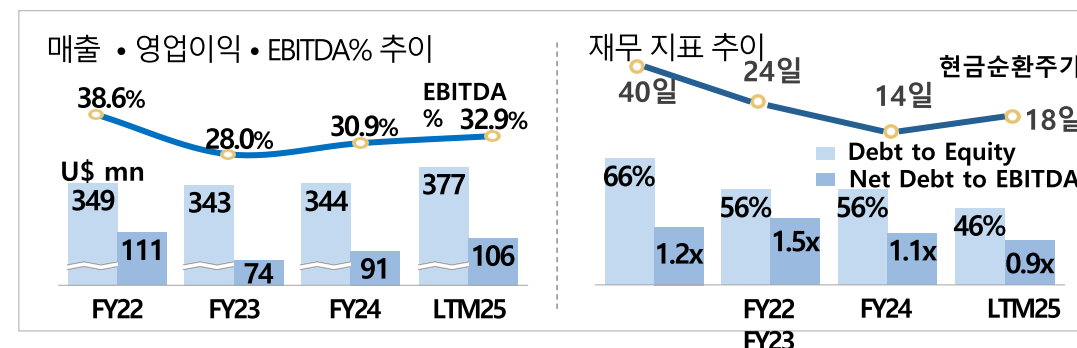
- 투자 대상 : PT Sampoerna Agro 社 의 지분 65.72%*
- 진행 현황 : SPA 계약 체결 및 인수 완료(25.11.19), PMI 및 잔여 소액 지분 공개 매수* 등 관련 후속 절차 이행(~26.上) 예정

*현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의무이며, 공개 매수 결과에 따라 인수 지분 확대 예상

인수 대상

- 대상 : 인도네시아 팜 대기업 PT Sampoerna Agro 社

- 설립/소재/시가총액 : '93년 / (농장) 수마트라, 칼리만탄 / U\$ 644백만 (25.11.13 기준)
- 30% 이상의 안정적 EBITDA 마진 창출 중인 인니 상장 팜 업스트림 기업



- 선정 사유 : 탁월한 입지/종자 등 보유 기반의 안정적 수익 창출

- 입지/종자 : 팜 메인벨트 지역 내 당사 선호 지역, 인니 내 2위 종자 개발/판매
- ESG : 100% 자원재순환 시스템 및 다양한 친환경 농업 적용 중으로 경쟁력 高
- 시너지 : BIA 법인과 생산Peak 차로 年균등 생산 可, 정제법인向 공급 용이 위치

Ⅲ. 사업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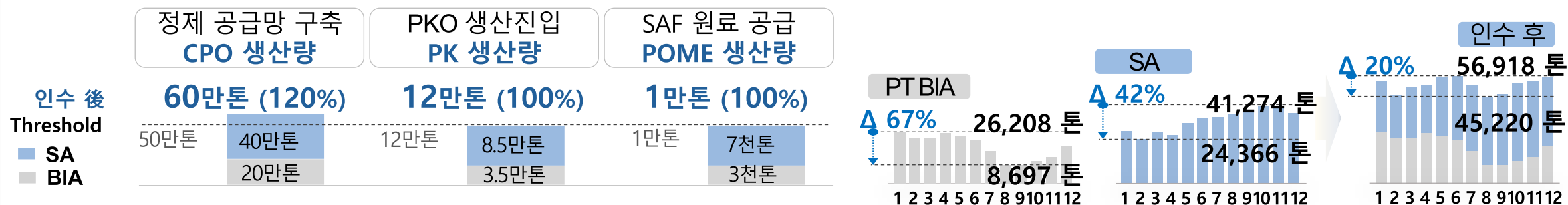
시장입지 강화/시너지 창출 통해 글로벌 메이저 팜 기업 도약 수익 ('30년 이익 ~3배)

수익성 확보 및 입지 강화

- 現 CPO 20만톤/영업이익 1천억원 수준 → '30년 CPO 70만톤/영업이익 3배 → '35년 CPO 100만톤/영업이익 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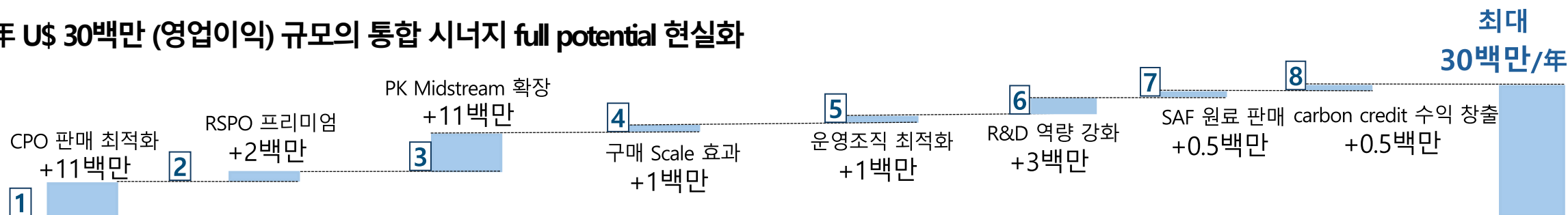
· 인수 시, RSPO 인증면적 기준 글로벌 메이저 도약 및 Scale 기반 시장 지배력 구현 可

· 기존 보유 농장의 확장 거점으로서 밸류체인 內 입지 강화



밸류체인 확장 시너지 창출

- 年 U\$ 30백만 (영업이익) 규모의 통합 시너지 full potential 현실화



사람과 사람을 이어갑니다

ESG경영 선도기업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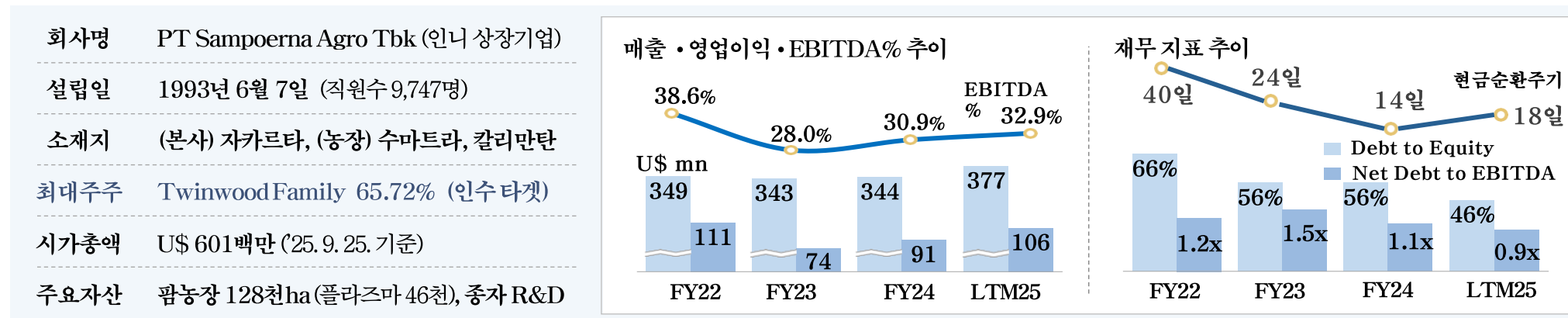
Appendix

**We Find Answers
PlanetWide**

[첨부] 인수 대상회사 개요(1/3)

○ [개요] 30% 이상의 EBITDA 마진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인니 상장 팜 업스트림 기업

- 담배사업 매각('05년 필립 모리스, U\$ 5.2B) 후 팜사업 인수·확장해왔으나, 그룹 포트폴리오 재편 결정에 따라 매각 진행



○ [보유 자산] 수마트라·칼리만탄 내 128k ha의 팜농장, CPO Mill 8기, 종자 R&D 센터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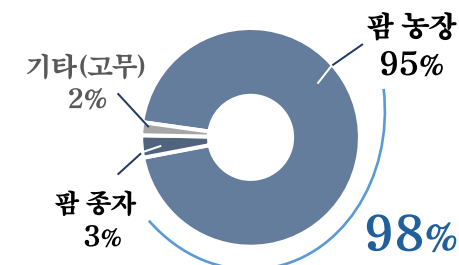
- 생산성 저조 고무농장 (23천 ha)은 인수 제외

• 팜농장 128천 Ha, CPO Mill 8기, PKO Mill 1기, 종자 R&D 센터 보유

※ 기타자산: 고무농장 23K ha (글로벌 환경인증 보유 / 개발단계로 적자 사업부: '24년 U\$ Δ 4M)

수마트라		칼리만탄		종자사업
총 경작면적	79 천 ha	총 경작면적	48 천 ha	- 인니 종자 시장 점유율 2위 (점유율 15%+, 1위는 국영업체) 12개 종자 + 연구소 보유
• 회사 농장	43 천 ha	• 회사 농장	38 천 ha	
• 플라즈마	36 천 ha	• 플라즈마	10 천 ha	
CPO Mill	5기 (360t/h)	CPO Mill	3기 (160t/h)	

사업별 매출 비중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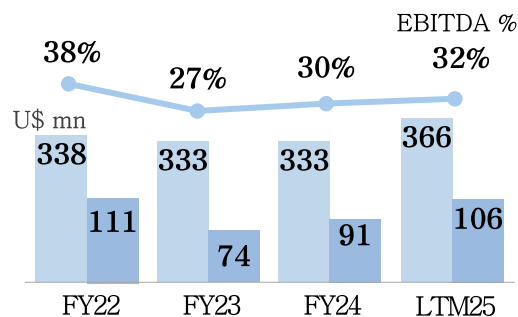


[첨부] 인수 대상회사 개요(2/3)

○ [농장] 평균을 상회하는 생산성 및 유리한 입지 활용, 30% 이상의 수익 안정적 창출 중

평균 30% 이상의 안정된 수익 창출 중

매출 · 영업이익 · EBITD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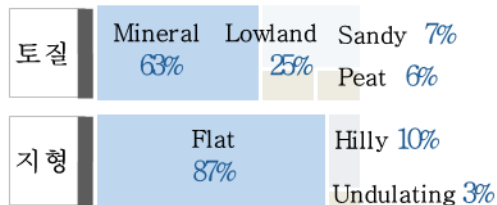


팜 메인벨트 지역 특성상 다양한 토질 · 지형 분포하나, 생산성 개선 노력으로 평균 소폭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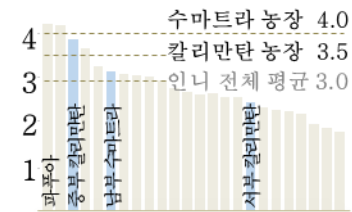
자체 생산성 개선 노력 및 메인벨트 입지(운송비 低) 활용 수익성 유지

※ Lowland, Sandy 토양은 Mineral 대비 통상 40~60% 수준 생산 (PT. BIA의 경우 100% Mineral, Flat 토양)

토양 분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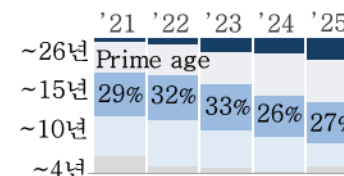


CPO 평균 생산성 비교



팜나무 식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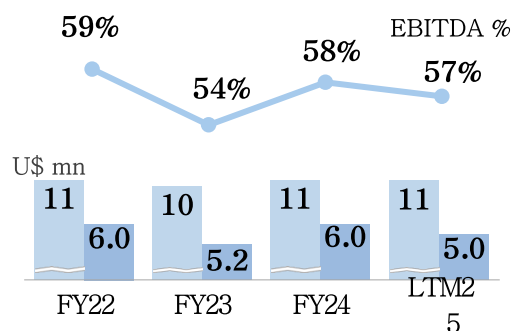
Systemic한 수령 유지관리 중



○ [종자] 인니 내 2위(점유율 약 15%) 종자 개발 · 판매업체로, 토양 · 기후별 적합 품종 및 육종 데이터 보유

R&D 사업으로 농장 대비 마진률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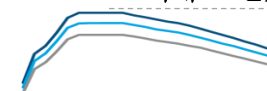
매출 · 영업이익 · EBITDA% 추이



선도 수준의 종자 R&D 역량 · 경험 보유로, 종자 판매 외 Agronomy Service 제공 중 (50개 + 농장)

SJ (보급형 - '04 출시)

[Yield] 최대 38톤/ha



SK (프리미엄 - '20 출시)

[Yield] 최대 42톤/ha



SJ/SK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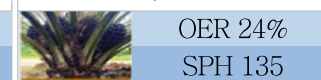
- FFB 생산성 최우수 품종
- 안정적 수고 관리 가능

SJ/SK 2



- OER(착유율) 최우수 품종
- 짧은 잎으로 고밀식 재배 가능

SJ/SK 3



- 환경 적응력 최우수 품종
- Peat 등 까다로운 토양 가능

SJ/SK 4



- 내구성 좋은 품종
- 스트레스 환경 생산성 유지

SJ/SK 5



- 밀식 재배와 특수 지형 대응 모두 가능한 다목적품종

SJ/SK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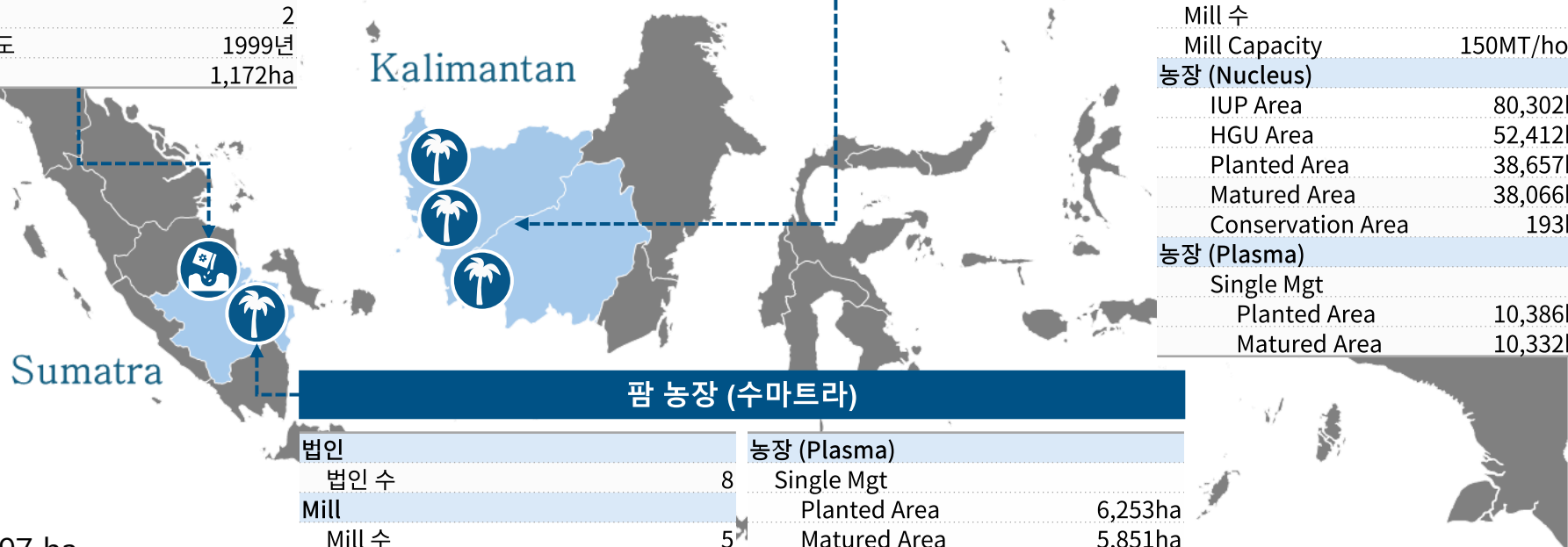
- 평탄한 미네랄 토양 대형 송이 생산 최적화 품종

[첨부] 인수 대상회사 개요(3/3)

인수 대상회사는 약 12.8만 ha의 식재 면적을 보유한 대형 팜기업

팜 종자 (수마트라)	
법인	
법인 수	1
재배지	
재배지 수	2
조업개시연도	1999년
면적	1,172ha

팜 농장 (칼리만탄)	
법인	
법인 수	12
Mill	
Mill 수	3
Mill Capacity	150MT/hour
농장 (Nucleus)	
IUP Area	80,302ha
HGU Area	52,412ha
Planted Area	38,657ha
Matured Area	38,066ha
Conservation Area	193ha
농장 (Plasma)	
Single Mgt	
Planted Area	10,386ha
Matured Area	10,332ha



팜 농장 (수마트라)	
법인	
법인 수	8
Mill	
Mill 수	5
Mill Capacity	360MT/hour
농장 (Nucleus)	
IUP Area	70,181ha
HGU Area	62,714ha
Planted Area	43,540ha
Matured Area	39,272ha
Conservation Area	1,381ha
농장 (Plasma)	
Single Mgt	
Planted Area	6,253ha
Matured Area	5,851ha
Conservation Area	1,606ha
Ind. Smallholders	
Planted Area	27,973ha
Matured Area	14,559ha

Nucleus 식재 면적: 82,197 ha
Plasma 식재 면적: 44,612 ha
기타 식재면적 (종자): 1,172 ha

식재 면적 계: 127,981 ha

포스코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투자자 간담회

2025년 11월 24일 (월) 14시 / 포스코타워송도

안녕하십니까? 정인철입니다.

지금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니 팜 기업 지분 인수 관련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발표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www.poscointl.com I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오늘 컨퍼런스콜에 참석한 임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소재 바이오 본부 임재성 본부장과 식량 사업 개발실 임선규 실장, 경영기획실 김동윤 실장, 지속가능경영 그룹 이수만 그룹장과 서은정 팀장, 국제금융실 안남기 실장과 자금그룹 이창준 그룹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실적발표 순서는, 먼저 제가 본 팜 농장인수 관련 주요 하이라이트를 말씀 드리고, 소재 바이오 본부 임재성 본부장께서 인니 팜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향후 성장성, 그리고 인수 기업의 개요와 미래 사업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곧바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지난 주 18일 인도네시아 대형 팜 상장사인 삼푸르나 아그로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19일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팜 정제공장을 준공함으로써 **팜 종자 개발부터 CPO 생산과 바이오 연료의 생산**까지 팜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밸류체인 확보를 통해 팜 사업의 마진을 극대화하고, 가격 변동을 완화하며, 원가 통제 등을 통해 이익을 기존 대비 '30년까지 3배 키우는 등,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익은 이번 달 부터 연결로 소폭 반영되며, 내년에는 모두 반영되어 내부 전사 이익 목표도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 대상은 삼푸르나 아그로의 최대주주인 Twinwood Holdings의 지분 **65.72%**이며,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법령에 따라 유통되고 있는 잔여 소액주주 지분 34.28%에 대한 **Mandatory Tender Offer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면 여기서 추가 지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5.72% 지분에 대한 인수 금액은 **5억6천7백만 달러**이며, **100%** 인수 시 총 **8억6천2백만 달러**가 예상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IBK증권의 spot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저희가 매력적인 자산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한 것이라 저희도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기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삼푸르나의 팜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고무 사업과 식재료로 사용되는 Sago야자 관련 사업은 최대주주가 **1억1천3백만 달러에 다시 buy-back**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종 인수대금은 buy-back 금액 1억1천3백만 달러를 제외한 4억9천4백만 달러와 7억4천9백만 달러 사이가 되게 됩니다. 오늘 발표 자료의 첨부를 참고하시면, 이번 인수하는 삼푸르나는 수익성이 매우 좋은 기업으로, LTM 기준 **EBITDA Margin 33%, 영업이익율은 28%, ROE는 20%** 수준으로 당사의 2024년 기준 ROE 8.14%를 2030년 **목표하는 15%**에 더 빨리 도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수 highlight에 대해 소개를 마치고, 본 인수에 대해 임재성 본부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 바이오 본부 임재성 본부장입니다. 팜 농장 사업 현황과 성장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팜 오일은 전 세계 식물성 유지 가운데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품목입니다. 동일 면적 대비 **대두나 유채유보다 4~8배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며, 글로벌 교역량 기준 40%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식용뿐 아니라 산업용, 그리고 최근에는 SAF 바이오 항공유 원료(POME)로 활용되면서 장기적인 성장성이 매우 견조합니다. 인구 증가와 친환경 연료 확대 정책이 맞물리며 향후에도 **2~3% 수준의 연간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 공급은 ESG 정책 강화로 신규 농장 개발이 제한되면서 구조적으로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정부터는 수급 불균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격 역시 장기적으로 **연 2% 내외 상승**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당사의 기존 인도네시아 농장인 PT BIA는 업계 대비 월등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PT BIA의 CPO 생산량은 ha당 8톤으로 업계 평균 4.3톤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며, 영업이익은 초기 대비 233% 증가, 영업이익률은 업계 평균의 약 1.8배입니다.

즉, 높은 진입장벽과 제한된 공급, 그리고 우수한 내부 운영역량이 결합되면서 팜 사업은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다음으로 인수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싱가포르 자회사인 AGPA를 통해 인도네시아 상장사 PT Sampoerna Agro(SGRO) 의 지분 65.72%를 인수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미화 5억 6,700만 달러이며, 11월 19일자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인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PMI와 잔여 소액주주 공개매수 등 절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개매수는 현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의무 절차이며, 결과에 따라 지분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ampoerna Agro는 1993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대형 팜 기업으로,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걸쳐 **128천 헥타르**의 농장, **8기의 CPO 착유**(Mill), 종자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가총액은 약 **8억 달러** 수준이며, 30% 중반의 안정적인 EBITDA 마진을 꾸준히 유지하는 우량 기업입니다.

선정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수한 입지와 종자 경쟁력입니다. 인도네시아 팜 사업 메인 벨트인 수마트라·칼리만탄에 핵심 자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 2위 종자** 개발·판매 기업으로 자체 개발 종자의 생산성 수준이 매우 뛰어납니다.

둘째, ESG 기반 운영 역량입니다. 자원 **재순환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글로벌 수준의 ESG 인증인 RSPO 인증을 확대 취득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당사 기존 법인 BIA 및 Balikpapan **정제공장(ARC)과의 밸류체인 시너지**입니다.

BIA와는 생산 시기 차이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규 정제공장과의 물류 연결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는 연간 CPO 20만 톤, 영업이익 1천억 원 수준의 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포함한 통합 시너지와 농장 확장 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에는 CPO 70만 톤 생산에 따른 이익이 기존 대비 **3배 증가**하고, 2035년에는 CPO 100만 톤 생산에 따른 **이익 5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당사의 RSPO 인증 면적 기준 글로벌 업스트림 순위가 대폭 상승하며, 팜 밸류체인 전체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한 기존 보유 농장을 중심으로 한 확장 거점 확보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제·PKO·SAF 원료 공급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도 의미 있는 긍정 효과가 발생합니다.

- CPO 판매 최적화 : +1,100만 달러
- PK·미드 스트림 확장 : +1,100만 달러
- RSPO 프리미엄 : +200만 달러
- R&D 역량 강화 : +300만 달러
- Carbon Credit 창출 : +500만 달러
- 구매 Scale 효과 : +1,000만 달러
- SAF 원료 판매 : +500만 달러

위와 같은 요소를 모두 감안하면 **연간 약 3,000만 달러 수준의 통합 시너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이저 팜 기업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